



**삼성전자, 세계 55개국 로밍 'HSDPA폰' 출시**

**'글로벌 로밍 HSDPA폰' ...두께 13.8mm 초슬림 디자인**



삼성전자가 국내 고속 하향패킷 접속(HSDPA) 폰 중 처음으로 GSM로밍 기능을 추가 지원해 세계 55개국(3월초 현재)에서 자동로밍

이 가능한 '글로벌 로밍 HSDPA폰' (SPH-W2500)을 1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일본이나 독일 등 3세대 통신 서비스가 지원되는 국가에서는 해외에서도 국내처럼 화상통화를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직 WCDMA·HSDPA가 발전하지 않은 중국, 미국, 러시아 등 GSM지역에서는 쓰던 폰과 번호 그대로 자동로밍을 해 사용할 수 있다.

13.8mm 두께의 세련된 초슬림 슬라이드 디자인을 갖춘 '글로벌 로밍 HSDPA폰'은 1.8Mbps 속도로 음악이나 동영상 등의 고용량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화상통화를 즐길 수 있는 등 초고속 데이터 통신 속도를 자랑한다.

또 화상통화를 하는 상대와 문자 채팅을 하거나, MP3 음악을 들으면서 무선인터넷 콘텐츠를 다운로드 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실행시킬 수 있는 '멀티태스킹'을 지원해 편리하다.

이밖에 화상통화를 위한 전면VGA급 카메라와 후면 200만 화소 카메라, 블루투스, 외장메모리 슬롯(micro SD) 등이 탑재되었으며, 파일뷰어, 이동식디스크, 3D메시지, 폰트 다운로드 등의 기능도 지원한다.

한편, 이날부터 출시되는 '글로벌로밍 HSDPA폰'은 매직실버, 퍼플 2가지 컬러로 KTF를 통해 공급되며, 가격은 50만원대다.



**KT, 와이브로 새 브랜드 공개**



KT가 휴대인터넷 서비스 브랜드를 'KT WIBRO'로 확정하고 새로운 브랜드 디자인을 선보였다.

KT(www.kt.co.kr 대표 남중수)는 3월 5일 국내 기술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차세대 무선 인터넷시장에서 KT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KT WIBRO'를 브랜드로 확정했으며, W를 중심으로 한 반원형 BI(Brand Identity)를 공개했다.

KT 관계자는 "중앙의 'W 마크'는 KT WIBRO가 추구하는 '와이브로-Style'을 표현하며, 'W'를 둘러싼 반원과 색상은 W-Style을 즐기는 사용자간의 만남과 교류, 이를 통해 표현되는 다양한 개성과 콘텐츠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T는 향후 출시되는 와이브로 단말과 서비스, 접속 프로그램, 광고, 각종 홍보물에 신규 브랜드를 적용하고, 4월부터 서울 전역과 지하철, 수도권 주요 도시 대학가로 와이브로 서비스를 확대해 모바일 2.0 문화를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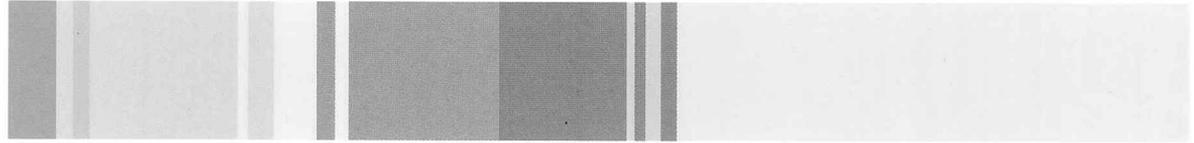
**SKT, WCDMA 단말 보조금 최대 35만원 지급**

**2G 실적에 따라 7만~35만원 차등 지급...4월 5일부터 적용 예정**

SK텔레콤이 WCDMA 단말 보조금에 대해 기존 30만원의 정액제 형태에서 탈피, 2G 이용실적에 따라 7만원에서 35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규 보조금 테이블제를 마련했다.

SK텔레콤(www.sktelecom.com 대표 김신배)은 WCDMA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기준 및 금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이용 약관을 3월 1일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관보조금 변경을 통해 SK텔레콤은 9만원 이상 5년 이상 가



입 고객 구간에게 3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장기 우량가입 고객의 혜택을 추가했다.

SK텔레콤의 이번 약관 보조금 변경안은 전산시스템 반영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준비해 오는 4월 5일부터 적용된다.



### KTFT, HSDPA 전용폰 출시

#### 플래시 앨범, 블루투스 등 다양한 기능 장착



KTFT(www.ever.co.kr 대표 송주영)는 HSDPA 전용의 '에버 슈퍼슬림 영상 통화폰' (모델명 EV-W100)을 출시한다고 2월 28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영상통화폰은 빠른 데이터 전송속도로 영상통화 및 화상채팅 등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또, 고품질 데이터 서비스가 지원된다.

특히, 이 폰은 영상통화 시 '립싱크 아바타'라는 기능을 적용해 이용자

얼굴대신 4가지 아바타(남자, 여자, 고양이, 고릴라)를 활용할 수 있다.

또, 촬영한 사진에 다양한 플래시 효과를 추가한 플래시 앨범 제작이 부가 기능으로 제공되며, 블루투스 기능이 지원되어 무선으로 음악감상은 물론 다양한 멀티태스킹 기능 구현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이 폰은 200만 화소 카메라, 128 화음 벨소리, 지하철 노선도, 33만 단어 전자사전, 이동식 디스크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EV-W100의 컬러는 블랙이며, 가격은 30만원대 후반이다.



### KTF, 전국대상 HSDPA 서비스 개시 서비스 커버리지 99% 확보

KTF(www.ktf.com 대표 조영주)가 3월 1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화상통화가 가능한 3세대 멀티미디어 데이터 서비스인 'SHOW'를 개시했다.

1일부터 본격 개시된 '쇼' 서비스는 영상전화는 물론, 영상회의(다자간 영상통화), 영상대화방(영상채팅), 영상라이브방송, 영상 링투유

(통화연결화면), W2P(웹투폰) 영상전화 등의 영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기본으로 제공된다. 또 고품질의 비디오 서비스와 음악, USIM 기반의 교통, 보안, 신용카드, 증권서비스, 위치기반서비스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도 기본으로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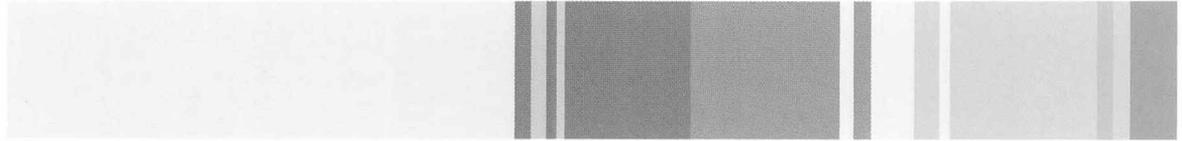
아울러 KTF는 HSDPA 서비스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쓰던 전화와 번호를 그대로 외국에서도 음성은 물론, 영상 데이터 통화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글로벌 자동로밍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현재 유럽, 일본 등 세계 50여개국에서 자동로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KTF는 오는 6월까지 전세계 100여개국으로 자동로밍 서비스 지역을 확대키로 했다.



### SKT, MMS 데이터통화로 전면 무료화

#### MMS 비 전용폰 고객까지 적용

SK텔레콤(www.sktelecom.com 대표 김신배)은 MMS 수신 데이



터통화료 무료 대상을 기존 MMS 전용폰에서 올 3월 1일부터는 모든 단말기로 확대한다.

MMS 전용폰이란 휴대폰의 문자봉투 버튼을 눌렀을 때 컬러메일 또는 MMS 메뉴가 있는 폰을 말하며, SK텔레콤 고객 중 MMS 비전용폰을 소유한 고객은 2월 말 현재 약 600만 명 수준이다.

비전용폰까지 MMS 수신확인 데이터통화료를 무료화 함에 따라, 그동안 수신자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담돼 MMS 서비스 이용을 주저하던 고객이 수신자의 요금 걱정 없이 MMS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수신 고객의 경우 통신 요금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KT, 통합 USB 모뎀 '아이플러그 프리미엄' 선보이**  
**와이브로-HSDPA 결합 구현**



KT가 하나의 단말로 와이브로와 HSDPA 두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 USB 모뎀을 선보였다.

KT(www.kt.co.kr 대표 남중수)는 와이브로(WiBro)와 KTF의 HSDPA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통합 USB 모뎀인 아이플러그 프리미엄(iPlug Premium)을 3월 5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아이플러그 프리미엄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도시 등 와이브로 서비스 지역에서는 기존의 무선 인터넷에 비해 최대 4배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외 지역에서는 HSDPA로 접속해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휴대성이 뛰어난 통합 USB 모뎀은 노트북, PMP(휴대형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등 다양한 단말에 연결이 가능해 이동 중 인터넷 사용

이 필요한 직장이나 대학생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와이브로 프리(월 1만 6000원/무제한) 등 다양한 와이브로 요금제와 월 2만 9500원/5GB 등의 HSDPA 요금제를 통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LGT 캔유DBM폰, 예판 두시간만에 조기매진**  
**총 10인의 유명 화가·만화가 작품 적용에 매료**

LG텔레콤(www.lgtelecom.com 대표 정일재)이 캔유 DMB(모델명 canU701D)의 출시를 기념해 실시한 예약가입 행사에서 준비된 제품이 두시간만에 조기 매진됐다.

LG텔레콤에 따르면, 캔유 DMB는 지난 2월 20일 전용 홈페이지(www.canu701d.co.kr)를 오픈한 지 하루 만에 방문자수가 5만명에 이르는 등 시작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예약가입 시작 첫날에는 예약가입 물량인 160대가 두시간만에 모두 매진됐다. 또, 일부 아티스트의 작품은 시작하지 5분도 안돼 한정수량이 모두 매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LG텔레콤은 캔유의 조기매진이 스페셜 리미티드 에디션 '아트 캔유'라고 명명된 만큼 유명 화가와 만화가 10인이 대거 참여, 디자인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번 아트캔유 디자인에는 이두식, 지석철, 이석주 등 국내 최정상급 화가와 '타짜', '식객'의 허영만, '마시마로'의 김재인, '광수생각'의 박광수 등 인기 만화가 총 10인의 작품이 적용됐다. 이번 캔유 DMB의 예약가입은 유저의 취향에 따라 원하는 작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아티스트별로 예판 날짜를 다르게 한 것도 특징이다.

한편, 스페셜 에디션 '아트 캔유'의 예약가입자는 특별 사은품으로 블루투스 헤드셋과 1G 마이크로 SD메모리를 받게 된다. 또한 출

시 후에는 예약가입에 참여한 화가의 원화와 함께 '아트 캔유' 100대가 한정 판매되는 갤러리 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 하나로텔레콤, 네트워크 품질혁신 강화

#### 연중 'SUPER-365' 캠페인 지속 실시...20일 결의대회 개최



하나로텔레콤이 올해 네트워크 품질혁신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SUPER-365 캠페인'을 실시했다.

하나로텔레콤(www.hanaro.com 대표 박병무)은 올해 네트워크 품질혁신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SUPER-365 캠페인'을 실시하고, 2월 20일 오전 서울 동작정보센터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나로텔레콤 측은 SUPER-365 캠페인이 지난해 하나로텔레콤이 실시했던 '무장애 123 운동'의 성공적인 달성에 힘입어 2007년 네트워크 품질 관리를 한 단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캠페인은 ▲서비스 품질 향상(Service quality improvement), ▲고객중심 망운용(User-centered operation), ▲운용기술의 선진화(Proactive & advanced operation), ▲지속적인 망 최적화(Enhance network optimization), ▲365일 무장애 운용

(Run problem-free network for 365)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었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이를 위해, 하나로텔레콤 측은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과 함께하는 네트워크 파일럿'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네트워크별 고객밀착 지원서비스 체계 및 망 불안정 요소 사전 제거 등 예방, 예지, 선형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이번 SUPER-365 캠페인을 전사 네트워크 품질혁신의 표준모델로 정착, 발전시켜 나간다는 예정이다.

이승석 하나로텔레콤 기술기획실장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통신시장에서 네트워크 품질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SUPER-365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무장애 운동 및 품질혁신활동 등의 노력을 통해 고객만족을 극대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동양시스템즈 대표 유준열씨 선임

동양시스템즈(www.tysystems.com 대표 유준열)가 지난달 28



일 제16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 동양창업투자 대표이사를 역임한 유준열씨를 선임 대표이사로 정식 선임했다.

유 선임대표는 동양종합금융증권, 동양카드, 동양창업투자 등 동양그룹 내 금융계열사에서 잔뼈가 굵은 대표적인 금융통이다.

동양시스템즈는 올해 주력 사업영역인 금융IT시장에서 대외 프로젝트 사업강화와 그룹내 물량 확대를 통해 매출 및 수익 다변화를 이뤄야 하는 경영과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산업 구조와 이해에 능통한 유준열 대표를 선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